

경제

광주 세입자 10명중 6명 '월세살이'

月 고정수익 보장 선호...5년새 9.7% 늘어 전국 평균보다 11% 높고 상승폭 가장 커

광주지역 세입자 10명 중 6명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일반가구는 지난 2005년 46만9071가구에서 지난해 51만5855가구로 5년 사이에 5만5765가구(12.1%) 증가했다.

이 중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구는 30만3961가구로 58.9%를 차지해 5년 전(24만6520가구, 53.6%)보다 5.3%포인트 높아졌다. 나머지 21만1894가구는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였다. 이 가운데 7만9085가구는 전세였고, 9만6917가구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반면, 1만1455가구는 보

증금 없는 월세, 1만4321가구는 사글세로 전체 가구의 39.1%(20만1778)가 임대차가구였다. 1만116가구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임대차가구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51.1%였던 월세 비중이 5년 사이에 무려 9.7%포인트 급증, 지난해 60.8%를 차지했다. 세입자 10명 중 6명은 월세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 평균 49.7%보다 11.1%포인트 높은 수치로, 상승폭 또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전남지역도 월세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 2005년 전 월세 비중

은 전세 56.5%, 월세 43.5%에서 지난해 전세 47.0%, 월세 53.0%로 5년새 월세비중이 9.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월세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등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주인들도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보다 월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처럼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 사업이 각광받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월세 집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

망했다. 광주국제청에 등록된 광주지역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영향으로 지난 2005년(1만6715명)에서 지난해 2만4902명(별인 928명, 일반 8917명, 간이 1만5057명)으로 48.9% 증가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월세가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은 물가부담에 거주비용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월세비율이 높은 지방에 공공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농식품 수출 40% 증가

광주 1억300만달러...전남 1억7200만달러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19일 올들어 9월 말까지 광주·전남지역의 농식품 수출실적이 2억7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9800만달러보다 39.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1억300만달러로 지난해 6500만달러보다 59.2%, 전남은 1억7200만달러로 지난해 1억3300만달러보다 29.3% 각각 늘었다. 9월 중 광주는 1200만달러, 전남은 2200만달러를 각각 수출했다. 분야별 증가율은 농산물이 1억4600만달러로 41.2%를 차지했고, 수산물 1억400만달러(36.8%), 임산물 1900만달러(37.7%), 축산물 700만달러(33.5%)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발효주 등 주류가 800만달러, 전복 2800만달러, 미역 2100만달러, 못 1900만달러, 유자차류와 감이 각각 1000만달러, 파프리카와 개야자살 각각 600만달러 등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 실적은 9월 말까지 52억9800만달러로 지난해 40억5600만달러보다 30.3% 증가했다. 이 중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2%였다. 이종경 aT 광주전남지사장은 "이러한 농식품 수출 증가는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관리를 개척한 결과"라며 "수출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등 안정적 수출 농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업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면 지역 농식품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국, 선박 수주 세계 1위

中 앞질러...올 수출액 사상 최대 전망

국내 조선업계가 3.4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0%를 수주하면서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유지했다. 1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3·4분기 선박 수주량은 247만 CGT(50.0%)로 중국(137만CGT, 27.8%)을 크게 앞지르면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3.4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액화천연가스(LNG)선 18척 전량을 수주했고, 드림십 5척 중 3척, 8000TEU 이상 대형컨테이너선 7척 중 5척을 수주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실적을 올렸다. 1~9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3% 줄어든 2357만 CGT에 그친 가운데 한국의 수주량은 1207만CGT로 17.2% 늘었다. 수주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한국이 51.2%로 과반이었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31.2%, 4.7%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조선업계의 건조량은 작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1179만CGT(390척)로 중국(1371만CGT, 892척)에 밀려 2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한국의 선박 수출액은 23% 늘어난 443억 달러로 잠정 집계돼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외환시장 '안전판' 강화에 환율 뚝

환율은 전날보다 13.70원 떨어질 1131.90원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한·일 정상이 양국 간 통화스와프를 현재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에 따라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70원 떨어질 1131.90원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카드 수수료 일괄인하 못해"

카드사 "중소가맹점 1.8%로 낮춰" 반발

여당에서 카드 수수료를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신용카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등은 지난 17일 중소기업법 위반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1.8% 이하로 낮추는 데, 여당 등에서 이같은 방안을 거론하자 격분하는 분위기다. 이들 카드사는 중소기업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올해 손익이 2000여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같게 매기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7조1949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맹점

관리비, 결제망 비용 등을 제외하면 대략 1조원 미만이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점중앙회 등이 요구하는 1.5%의 수수료율을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어 수수료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를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오면 다양한 입장을 개진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대형가맹점 중에서 수수료가 1.5%인 곳은 주유소 정도밖에 없고 대형가맹점 평균은 2% 초반대"라면서 "모든 업종에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모든 카드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건설, 베트남 21개 건설사와 MOU

▲ 코스피지수	1,855.92 (+17.02)
▲ 코스닥지수	488.17 (+4.74)
▲ 금리 (국고채 3년)	3.45% (0.00)
▼ 원·달러 환율	1,131.90원 (-13.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금호건설은 최근 베트남 21개 건설업체와 '우수 협력사 파트너십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베트남 호찌민 금호아시아나플라자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체결식 행사에는 금호건설 정광식 건축사업본부장과 17개 공종 21개 베트남 건설업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수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글로벌 친환경기업 22위

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1위는 독일의 금융사인 뮌히어(Munich Re)가 차지했고, IBM과 브라질의 금융기업 브라데스코가 각각 2,3위였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22위에 올라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가에서는 54위에 불과, 한 해 만에 32계단이 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또 글로벌 친환경 테크기업 30개사 중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8위에 올랐고, 기술 장비(Technology Equipment) 분야에선 4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친환경 테크기업 1위는 IBM이었고 제조업체 중에선 후지쓰(4위), 휴렛 팩커드(5위), 샵(6위), 노키아(7위) 등이 삼성전자보다 상위권에 위치했다. /연합뉴스

대기업 정규직 여성비율 19.6% 불과

대기업 정규직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2011년 6월 분기보고서를 공시한 28개 대

기업의 직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80.4%, 여성이 19.6%로 각각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나은행으로 전체 직원의 57.7%가 여성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전현숙국밥 서구 송촌동 981-8 현대상부인과학 곱창야채철판,순대야채철판,매운갈비 단체손님환영 대표 송태중 ☎(062)384-8298	나는포차다(땡깡) 광산구우산동 농수산물공시센터 수산물 포장마차 대표 강홍재 ☎(062)962-0038	빛솔 참숯구이 북구 용봉동 유창파크맨션옆 삼겹살,돼지갈비,막창,단체손님환영 ☎(062)524-7335	두암한우터운 식육식당 두암동 두암3동사무소앞 주공209동 맞은편 생고기,차돌박이,육회,갈비살,흑돼지삼겹살 점심특선-생고기비빔밥,우거지탕,기름김치 ☎(062)268-9222	우성철학원 두암동 마리보@입구사거리 월드타워빌딩2층 시중공한수적영특이시은순진은 각종상담 사주에 맞는 도장 조각 전문 ☎(010)5630-9637		
광주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 매매 무료감정 고급표구, 족자판매점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대석 ☎(062)222-1936	황태사랑 금남로2기4-1 귀동구청후문 황태탕,황태찜,황태전골,황태생선구이 황태구이,돌솥밥,생선구이,돌솥밥 대표 김진숙 ☎(062)224-1541	유촌 북구 중흥동 남양건설빌딩옆 생선요리전문 점심특선(오전11시30분~오후2시까지) 생태탕,조기매운탕 5,000원 ☎(062)529-9508	건강리듬다이어트 북구 두암동 주공3단지@상기2층 202호 10회3만원,반식욕무로,무료체지방측정 한달5kg~10kg감량가능,피로해소,피부미용 ☎(010)5647-0589	드림텔레콤 각사 핸드폰트마트폰,핸드폰 신규가입 기기변경번호이동,인터넷가입,요금납 각종 업무 대행 ☎(062)262-9010	쌍쌍대리운전 3회 이용시 1회 무료 동부,삼성,LG 전직원 보험가입 사고 카메라등 100% 사후처리 ☎1599-4242
목화웨딩 동구 불로동 169-1 히딩크호텔 입구 웨딩그룹 목화·스마트웨딩, 웨딩미디어, 웨딩컨설팅 대표 이현희 ☎(062)232-3636	김장열청원모빌 동구 황금동 78-9번지 1960년 청원모빌 창업주 대표 김장열 ☎(062)223-6226	시골집 동구 금동 15-2번지 생태탕, 삼겹살, 장어탕, 청국장탕 대표 조금숙 ☎(062)227-4565	온누리헤어 동구 불로동 153-1번지(히딩크호텔옆) 불임머리, 파마, 컷트전문 대표 심은영 ☎(062)223-3777	KCC라이프엔진(광주지사) 동구 금남로3가 동양저축은행 옆 KT&G 건강브랜드, 영영사원 모집 ☎(070)7533-1007	Siver Holic 동구 광산동 구.시창사거리 실버커피링, 이어링 ☎062-222-0144	네온사이드미러 광주·전남 총판 네온사이드미러 광주·전남 총판 신인동 사거리 삼성자동차부품상사 운전중 시각지대해결,넙진시야 차선변경 주차사이드,국토해양부지정 교통신기술호 ☎(062)521-7452
굴마을 서석동 50-6번지 동구청 서석문앞 사계절 요리전문 대표 임영희 ☎(062)266-9119	국제상사 월산동 송광맨션옆 사거리 이모레,한국화장품,주리아화장품,한방화장품 종합화장품,도.소매 전국대리점 모집 대표 최복순 ☎(010)8325-9979	e연세한의원 서구 금호동 서구문태사거리 우리은행옆4층 비염,성장,아토피클리닉,비만,해독,통증클리닉 갱년기 여성질환 클리닉 원장 이혁 ☎(062)652-1127	춘추관 남동 33번지 새마을금고옆 생고기 숯불구이 전문점 연회석300석,각종모임단체환영,대형주차장 ☎(062)228-3389	한마음공인중개사 용전동 용전·태령간 사거리 개발지구, 토지, 투자상담 전문업체 대표 주일수 ☎062-576-1003	전라도맛집 봉선동 936-5번지 그린상부인과학 맛에서 정성까지 병어조림, 갈치조림, 생태탕전문점 ☎(062)651-8887	순살파닭광주2호점 학동 남광주사거리에서 학문외곽 배달전문 ☎(062)225-3992